

# 사회인야구 '가을잔치' 뜨거운 타격전

광일리그 - 소호시스템·그린라인·국토한방병원·시원병원 준결승 진출  
무등리그 - 한수위교육센프렌즈·에어패스파죽지세·자연환경·금호허리케인 4강 티켓

## 제1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광주-전남 사회인야구인들의 '가을잔치'가 시작됐다. 광주일보와 전남문화가 주최하는 제11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가 23일 영광 대마산단 야구장에서 시작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올 시즌에는 리그별로 8개팀이 참가해 우승을 다투게 됐고, 1주 차 경기를 통해 4강 팀이 확정됐다.

광일리그에서는 소호시스템, 그린라인, 국토한방병원, 시원병원 원이 준결승행 티켓을 가져갔다. 풀카운트와 대회 개막전에 나선 소호시스템은 12-1, 5회 콜드승을 장식했다.

소호시스템은 1회부터 6점을 폭발하면서 기선 제압에 나섰고, 선발 김기정이 6이닝 8탈삼진 1실점 호투를 기록했다. 허위 타순에서의 활약도 돋보였다. 7번 양준태가 3사사구로 2득점에 성공했고, 8번 배준영은 2개의 3루타로 3타점을 수확했다.

그린라인은 유니티와의 승부에서 8-3 승리를 거뒀다. 1회 김동인의 솔로포 등을 묶어 3점을 뽑은 그린라인은 승부가 3-3 원점으로 돌아간 4회 5득점의 박이닝을 만들었다. 이어 그린라인은 조진훈에 이어 출전한 양지승의 2이닝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확정했다.

국토한방병원은 뉴욕아시아장과 타격전을 펼친 끝에 12-9로 이겼다. 선취점은 뉴욕아시아장이 가져갔지만 국토한방병원이 2회 2-1로 승부를 뒤집었다. 4-1로 앞선 3회 6실점으로 리드를 내준 국토한방병원이 그대로 물러나지 않았다. 5-6회 각각 4점을 더해 12-9를 기록했다. 4번 박지복이 3안타로 활약했다. 시원병원은 담양애를 17-0, 4회 콜드승으로 꺾었다.

1회 2점을 만든 시원병원은 2회 6점을 더해 일찍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5번 이종욱이 3안타로 4타점을 쓸어담았고, 3번 조지훈은 4안타 3타점 4득점의 활약으로 승리의 주역이 됐다. 무등리그에서는 한수위교육센프렌즈, 에어패스파죽지세, 자연환경, 금호허리케인이 승자가 됐다. 한수위교육센프렌즈는 정진산업을 상대로 3-10, 6회 콜드승을 완성했다. 선취점은 내취지만 1회말 5점을 뽑으며 바로 승부를 뒤집었다. 3회에도 3점을 보낸 한수위교육센프렌즈는 4이닝 1실점을 기록한 선발 김경호의 활약을 더해 4강 티켓을 가져갔다. 에어패스파죽지세와 워리어스는 2회까지 '0'의 침묵을 이어갔다. 선발로 나온 이창수가 2이닝 무실점으로 역할을 해주자 3회 초 에어패스파죽지세가 3점을 뽑았다. 워리어스도 이어진 공격에서 2점을 만들며 추격했다. 하지만 에어패스파죽지세가 4회 다시 3점을 만들면서 6-2 승리를 확정했다. 자연환경은 완투를 기록한 박래준을 앞세워 8-2로 이겼다. 자연환경이 1회말 5득점으로 기싸움에 나섰다. 4번 김용신이 3안타 3타점 활약으로 타선 싸움을 이끌어냈고, 선발 박래준은 6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면서 7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승리투수가 됐다. 마지막 경기에서는 금호허리케인과 (주)삼진에너지의 팽팽한 승부가 전개됐다. 삼진에너지가 2점을 먼저 뽑았지만 금호허리케인이 4회 3-2 역전에 성공했다. 금호허리케인은 5회에도 2점을 보냈다. 삼진에너지가 바로 2점을 뽑으면서 우승했지만, 마무리 김기철을 내세운 금호허리케인이 1점의 리드를 지키면서 승리를 챙겼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4일 영광대마산단 야구장에서 열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경기에서 워리어스를 상대로 2회초 번트를 시도한 에어패스파죽지세의 신문철(오른쪽)이 1루에서 아웃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무등기 1주차 전적  
◇광일리그 8강전 (23일)  
◆1경기 (5회 콜드)  
소호시스템 6 0 3 0 3 - 12  
풀카운트 0 0 0 0 1 - 1  
▲승리투수 : 김기정  
◆2경기 (5회 시간제한)  
그린라인 3 0 0 5 0 - 8  
유니티 1 1 1 0 0 - 3  
▲승리투수 : 조진훈 ▲홈런 : 김동인 (1회 1점·그린라인)  
◆3경기  
국토한방병원 0 2 2 0 4 4 - 12  
뉴욕아시아장 1 0 6 2 0 0 - 9  
▲승리투수 : 윤재권  
◆4경기 (4회 콜드)  
시원병원 2 6 5 4 - 17  
담양애 0 0 0 0 - 0  
▲승리투수 : 임진우  
◇무등리그 8강전 (24일)  
◆1경기 (6회 콜드)  
정진산업 1 0 0 0 2 - 3  
한수위교육센프렌즈 5 0 3 1 0 2 - 11  
▲승리투수 : 김경호  
◆2경기 (6회 시간제한)  
에어패스파죽지세 0 0 3 3 0 0 - 6  
워리어스 0 0 2 0 0 - 2  
▲승리투수 : 방민택  
◆3경기 (6회 시간제한)  
파트너스 0 1 0 0 1 0 - 2  
자연환경 5 3 0 0 0 0 - 8  
▲승리투수 : 박래준  
◆4경기  
금호허리케인 0 0 0 3 2 0 0 - 5  
삼진 2 0 0 0 2 0 0 - 4  
▲승리투수 : 이정현



22일 광주 영주종합체육관(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페퍼저축은행과 GS칼텍스의 경기에서 엘리자벳(오른쪽)이 공격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패기의 신생팀 AI 페퍼스 챔피언의 노련함에 막혔다

공격력·리시브·블로킹 모두 약세  
GS칼텍스에 0-3 완패



신생팀 AI페퍼스가 연패에서 드러난 약점을 보완해 재도약할 수 있을까. AI페퍼스는 지난 22일 광주 서구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GS칼텍스를 상대했다. GS칼텍스는 지난 2020-2021 시즌에서 정규리그 1위,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이다. 결과는 0-3(19-25, 13-25, 16-25) 완패였다. 지난 19일 개막전에서 깜짝 첫 세트를 따내는 등 '기적같은 하루'였다면, 22일 경기는 아직 부족한 점을 통감한 '반성의 하루'였다. AI페퍼스는 첫 세트부터 GS칼텍스의 맹공에 주춤했다. 1세트 3-5패는 GS칼텍스 외국인선수 모마에게 2번 연속으로 서브 에이스를 내줬다. AI페퍼스는 이번 경기에서 총 7차례 서브 에이스를 내주는 등 리시브가 흔들렸다. 리시브 효율도 23.44%에 그쳤다. 이는 리시브 성공 회수에서 실패 회수를 뺀 뒤, 이를 다시 전체 리시브 시도 회수로 나눈 값이다. 취약한 블로킹도 속제로 남았다. GS칼텍스가 블로킹 성공 10회를 기록할 동안 AI페퍼스는 단 4회밖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는 김형실 AI페퍼스 감독이 경기 전 "블로킹이 아직 약하다"

고 짚을 만큼 예견된 문제였다. 공격력도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다. AI페퍼스는 이날 팀 공격 성공률 37.04%를 기록했다. 엘리자벳은 이날 19득점, 공격성공률 50%를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이한비는 6득점(공격성공률 37.5%), 박경현은 4득점(공격성공률 25%)에 그쳤다. 오픈 공격이 상대 블로킹에 번번이 막히면서 자신감이 떨어졌다. 자연스럽게 타점이 높은 엘리자벳에게 공격 기회가 몰렸다. 이날 엘리자벳의 공격 점유율은 39.51%로 눈에 띄게 집중됐다. '합'이 안 맞는 모습도 보였다. 3세트 8-9, GS칼텍스 안혜진의 서브를 이한비가 리시브, 구술이 토스했다. 하지만 아무도 공격을 하지 않은 탓에 볼이 맥없이 코트에 떨어졌다. 선수간 사인이 맞지 않아 아무도 나서지 않은 탓이다. 김 감독은 경기 중 "강타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플레이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패기만으로 디펜딩 챔피언의 노련함을 넘어서는 건 어려웠다. 더 교묘한 팀 플레이와 전력을 다져야 하는 이유다. 김 감독은 "한 점, 한 점을 아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두드리면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며 "아직 전반적으로 역부족이다. 더 적응하고, 호흡이 더 좋아지면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AI페퍼스는 오는 29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첫 원정 경기를 치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KIA 다카하시, 6이닝 1실점 '10K' 호투



첫 원정길에 나선 KIA의 '재 외국인 투수' 다카하시가 6이닝 1실점 '10K'의 호투를 선보였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NC 다이노스와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에서 1-4 패배를 기록했다.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다카하시가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위력투를 보여주며 내년 시즌 기대감을 키웠다. 9월 25일 SSG전을 시작으로 안방에서만 5경기를 소화했던 다카하시의 이번 KBO 입성 후 처음 '낮선 마운드'에 섰다. 시작은 깔끔했다. 첫 타자 정현을 포수 파울플라이로 잡았고, 강진성은 유격수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그리고 나성범의 방망이를 헛뜰게 하면서 탈삼진 행진에 시동을 걸었다. 2회 양의지의 타구가 3루수 류지혁을 맞은 뒤 내야안타가 됐지만, 다카하시가 이후 세 타자를 모두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다. 3회 아쉬운 수비로 실점이 기록됐다. 선두타자 박대은에게 좌전안타를 내주자 NC가 번트를 시도했다. 최승민의 번트 타구를 잡은 다카하시가 1루로 송구했지만 타자 주자의 발이 빨랐다. 그러자 NC가 다시 한번 번트를 시도했다. 정현의 타구를 잡은 다카하시가 2루로 송구했고, 공을 잡은

유격수 박찬호가 2루 베이스를 찍으며 원아웃을 만들었다. 하지만 박찬호의 1루 악송구가 나온 사이 박대은이 홈에 들어왔다. 실점은 했지만 이어진 1사 2루에서 다카하시가 강진성을 3루 땅볼로 잡고, 나성범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으면서 자책점은 기록되지 않았다. 다카하시의 4회 2사에서 노진혁에게 이날 첫 볼넷을 내줬지만, 김주원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았다. 우전안타와 볼넷으로 만들어진 5회 1사 1·2루 위기에서는 다시 한번 탈삼진 능력을 과시했다. 강진성의 방망이를 헛뜰게 했고, 나성범과의 세 번째 승부도 삼진으로 마무리했다. 6회 선두타자 양의지를 몸에 맞는 볼로 내보낸 다카하시의 앞테어의 어려운 파울 타구를 2루수 김태진이 잘 처리해주면서 원아웃을 만들었다. 다카하시의 노진혁을 삼진으로 잡은 뒤, 김주원에게 안타는 맞았지만 박대은을 상대로 이날 경기 10번째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1-1에서 등판을 마무리했다. 경기는 7회 나온 NC 앞테어의 스리런으로 1-4, KIA의 패배로 끝났다. KIA는 23일 더블헤더 2차전 2-5 패배 등 연패는 기록했지만, 신예 선수들의 경쟁력을 점검하는 두 경기를 펼쳤다. 22일 그리고 23일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사이드암' 임기영과 윤준현을 앞세워 갈길 바쁜 NC를 상대로 2승도 만들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리그1 광주FC, 3-1 수원FC 꺾고 5연패 탈출

K리그2 전남은 김천에 져 4위 확정

광주FC가 '광탄소년단'의 골 퍼레이드로 5연패에서 탈출했다. 광주가 24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21 24라운드 정규리그 최종전을 3-1 승리로 장식했다. 엄지성의 골을 시작으로 이희균과 엄원상이 '득점 릴레이'에 나서 길었던 연패를 끊어냈다. 최종전 승리와 함께 광주는 정규리그에서 9승 5무 19패(승점 32)의 전적을 남기게 됐다. 최하위를 기록하며 'B그룹'에서 파이널라운드를 치르게 됐지만, 이날 승리로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하며 좋은 분위기가 '생존 싸움'을 벌이게 됐다. 전반 7분 이희균이 위력적인 프리킥을 날리며 상대를 깜짝 놀라게 했다. 13분에는 엄원상이 오른쪽 측면으로 질주해 예리한 크로스가키 선보였지만 상대 수비에 막혀 슈팅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전반 18분 '엄두오'가 선제골을 합작했다. 엄원상이 여봉훈과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오른쪽 측면을 뚫었고, 중앙으로 진출한 엄원상이 엄지성에게 패스를 했다. 엄지성은 오른쪽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선제골을 만들었다. 23분 골키퍼 윤보상이 좋은 수비를 선보였다. 광주 진영으로 진입한 타르텔리가 윤보상을 마주하고 슈팅을 날렸지만, 호수비가 나왔다. 37분에는 비디오 판독 끝에 광주가 가슴을 쓸어내렸다. 프리킥 상황에서 넘어온 공이 라스에 이어 김건용의 머리에 맞고 광주 골대로 향했다. 골키퍼 윤보상이 공을 쳐냈지만, 흐른 공을 잡은 타르텔리가 슈팅을 시도했다. 공은 문전에 있던 이희균이 골대를 갈랐다. 비디오 판독 끝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광주가 한숨을 들쭉했다. 전반 42분 엄원상의 슈팅이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지만, 전반 종료 직전 이희균이 골세리머니를 했다. 왼쪽 측면에서 이희균이 올려준 크로스를 반대쪽 골대 앞에 있던 이희균이 발리슈팅으로 연결했다. 유현 골키퍼를 스친 공이 골대를 가르면서 2-0이 됐다. '금호고 유스'들의 활약은 후반전에도 이어졌다. 전반전 좋은 움직임으로 공격을 이끌었던 엄원상이 득점까지 만들었다. 김중우의 패스를 받은 엄원상이 특유의 스피드로 오른쪽 측면을 치고 오른 뒤 시원한 오른발 슈팅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었다. 광주는 후반 28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재용의 헤더에 1점은 내줬지만, 추가 실점 없이 남은 시간을 지키면서 3-1 승리를 거뒀다. 한편 최종전 결과 전북, 울산, 대구, 수원FC, 제주, 수원삼성이 파이널A에 진출했다. 김천 원정에 나선 전남 드래곤즈는 3위 도전을 멈췄다. 전남은 지난 23일 김천상무와의 K리그2 3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7분 나온 알렉스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3으로 졌다. 후반 6분 고승범에게 동점골을 내준 전남은 후반 16분에는 페널티킥으로 1-2 역전을 허용했다. 전남은 볼 점유율 과정에서 조규성의 얼굴을 찬 고대원이 비디오 판독 끝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빠졌고, 후반 34분 조규성에게 추가골을 내주면서 1-3 역전패를 기록했다. 34라운드 부산전 2-0 승리로 4강을 확정했던 전남은 이날 패배로 그대로 4위를 확정했다. 3위 대전은 2위 안양을 상대로 3-1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라운드에서 승점 1점 차의 2위 싸움을 벌이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